

신소설 〈명월정(明月亭)〉에 형상화된 송도기생(松都妓生)의 고찰

박상석*

— <차 례> —

1. 서론
2. 작품 밖의 송도기생
3. 〈명월정〉에 형상화된 송도기생
 - 1) 기생조합소
 - 2) 기생연주회
 - 3) 인신매매
 - 4) 기생 영업에 대한 비판
4. 송도기생의 설정 배경
 - 1) 송도여인의 긍정적 이미지
 - 2) 작품의 고발성
5. 결론

〈국문초록〉

조선 최고의 명기(名妓) 황진이(黃眞伊)로 인하여 송도기생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그녀 이외에 송도기생이 조선의 야담이나 소설에 등장한 예는 찾기 어렵다. 1912년도에 출판된 신소설 〈명월정(明月亭)〉은 이 같은 송도기생을 다루었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 차채홍이 개성의 기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를 통해 기생조합소, 기생연주회, 인신매매 등 기생과 관련된 당시의 제도 및 풍속을 사실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으며, 기생营业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설을 제시하며 당시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문학에서 형상화된 전례가 드문 송도기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이 작품이 지닌 중요한 가치이다.

〈명월정〉에서 특별히 송도기생을 내세운 이유는 우선 기생에 대한 당시의 비

* 동아대.

판적 여론에서 찾을 수 있다. ‘개화(開化)’가 지상 가치였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생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부정적 존재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기생의 대표 격인 평양기생은 여러 편의 신소설에서 악인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채홍이 기생의 집단에 빠져드는 것은 서사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피해야 할 문제였다. 송도여인은 특히 평양기생과 대비되면서 지조와 절개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 만큼 채홍을 송도기생과 연결시켜 긍정적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송도기생이 다뤄진 것은 작품이 지닌 고발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소설에 주로 등장한 것은 중국 강남(江南)이나 조선 평양(平壤)의 기생이었다. 강남이나 평양은 번성하고 화려한 곳이었으며 실제로도 명기가 많았던 곳이기에 기생과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어울렸던 곳이다. 그러나 <명월정>은 기생 영업의 폐해를 고발하며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강남이나 평양이 환기하는 낭만적 심상은 도리어 작품의 주제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그러한 공간적 이미지와 무관하며 신흥 기생조합소와 상업 발달로 인한 물질적 부(富)가 어우러져 많은 폐단을 자아내고 있었을 개성이 작품의 공간으로 보다 적당했던 것이다.

주제어 명월정(明月亭), 송도(松都), 개성(開城), 송도기생(松都妓生), 평양(平壤), 평양기생(平壤妓生), 강남(江南), 강남기생(江南妓生), 기생조합소, 기생연주회

1.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속 서사물의 주된 내용은 로맨스(romance), 즉 젊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조선소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주생전>·<운영전>·<춘향전>과 같은 본격적 애정소설이 남녀 간의 애정담(愛情談)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이요, <조웅전>·<유충렬전> 등의 군담소설이나 <소현성록>·<유씨삼대록> 등의 가문소설도 남녀 간의 애정담이 서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중세 신분제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조선소설에서 남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 여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귀족집안의 규수이고, 또 하나가 기생(妓生)이다.¹⁾ 남주인공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였다. 기생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탈의 구역에서 자유롭게 만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기에 낭만적 사랑 이야기에 꼭 알맞은 인물이었다.

조선소설의 공간배경은 대부분 조선이거나 중국인데, 중국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는 강남(江南)²⁾의 기생이 자주 등장한다. <주생전>의 배도(俳桃)가 전당(錢塘)³⁾의 기생이고, <동선기>의 동선(洞仙)이 항주(杭州)의 기생이며, <옥루몽>의 강남홍(江南紅)이 소주(蘇州)의 기생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강남의 권역에 든다. 강남은 자연 경관이 매우 수려한 데다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다. 그 화려함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제격이기에 이곳 기생이 남주인공과 애정을 나누는 상대역으로 자주 등장했던 것이다.⁴⁾ 조선의 평양(平壤)은 역시 물산이 풍족하고 경관이 빼어나

-
- 1) 조선에서는 ‘기생’이란 말을 주로 썼고, 중국에서는 ‘기녀(妓女)’란 말을 주로 썼다.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 『기생: 말하는 꽃』, 소담, 2002, 32-33쪽) 따라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 대해서는 ‘기녀’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지만, 혼동을 막기 위해 ‘기생’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 2) 강남은 정확하게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장강(長江) 이남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넓게는 광서성(廣西省)·운남성(雲南省) 등 서남의 변방 지역까지 가리키지만, 그 핵심 지역은 강소성(江蘇省) 내의 소주(蘇州), 항주(杭州)를 중심으로 한 절강성(浙江省), 그리고 호남성(湖南省) 일원이다.
 - 3) 전당강(錢塘江)은 중국 절강성 북부를 유역으로 하여 항주만(杭州灣)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 4) 문학적 공간으로서의 강남이 지닌 특성에 대해 고구한 논문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권순궁, 『한국 고소설과 중국 湖南지역』, 우리한문학회, 『漢文學報』 19, 2008; 김민호, 『他者の視線으로 바라 본 中國 江南 이미지: 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中國語文硏究會, 『中國語文論叢』 43, 2009; 김진영, 『강남 문학의 지역적

며 일찍부터 상업이 번성한 풍류와 유흥의 공간으로, 문학에서 중국의 강남과 비슷한 심상을 환기하는 고장이었다.⁵⁾ 평양은 실제로 많은 명기(名妓)가 배출된 색향(色鄕)이기도 하여,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는 주로 이곳 평양의 기생이 등장한다. <옥단춘전>의 옥단춘, <이진사전>의 경패, <이춘풍전>의 추월, <금상첨화>⁶⁾의 추월, <추풍감별곡>의 채봉, <부용상사곡>의 부용이 모두 평양의 기생이다. 이런 전통은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李光洙)의 소설 <무정(無情)>에서 영채가 평양기생으로 설정되는 데로까지 이어졌다.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평양 이외의 기생이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명월정(明月亭)⁷⁾>에는 송도기생(松都妓生),

특성, 부산 외국어 대학교, 『外大論叢』 21, 2000 ; 신태수,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풍화: 권필의 <周生傳>에 형상화된 중국 남방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31, 2011 ;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中國 江南의 文學地理學』, 한국한문학회, 『韓國漢文學研究』 49, 2012.

- 5) 고소설 속에서 강남의 핵심부인 중국 절강(浙江)과 조선의 평양이 여러 모로 유사한 심상을 지닌 상호 등가적 공간이기도 했음이 앞선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무엇보다 두 지역은 각각 전당강과 대동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기생과 풍류객의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두 지역의 유사성은 <옥루몽>과 <부용상사곡>의 대비에서 잘 드러난다. <부용상사곡>은 <옥루몽>에서 항주기생 강남홍이 소주자사(蘇州刺史) 황여옥의 집간을 피해 전당호에 투신하는 화소를 그대로 가져와 평양기생 부용이 평안감사 이도중의 집간을 피해 대동강에 투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 부분에서 <부용상사곡>은 <옥루몽>의 자구(字句)까지 그대로 옮긴 정도이다. 고소설에서 경우에 따라 강남이 평양으로 대체되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4, 2011)
- 6) 야담(野談)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을 모티프로 하여 1913년도에 신구서림(新舊書林)에서 활판본(活版本)으로 발행된 소설. <소설인규옥소선>의 자란도 평양의 기생이다. (강현조, 이야기의 소설적 각색에 대한 일고찰: <화산중봉기(華山重逢記)>와 <단발령(斷髮嶺)>,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과 <금상첨화(錦上添花)>, <삼쾌정(三快亭)> 제 2화와 <고의성(鼓의聲)>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회 제 60차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문, 2013.3)

즉 개성(開城)의 기생이 등장하며⁸⁾ 더욱이 그에 대해 상당히 꺾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품의 저자는 박이양(朴頤陽)이고,⁹⁾ 1912년도에 유일서관(唯一書館)에서 활판본(活版本)으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1918년에 재판이, 1922년에 삼판이 발행되었다. 작품이 발표된 그 당시가 시대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때는 1911년. 서울 사는 허원(30대)이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개성 여인을 첩으로 둔 친구 우주사(禹主事)로부터 개성 여인을 극구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신도 개성 여인을 첩으로 들이고자 개성으로 향한다. 경의선을 타고 개성에 도착한 허원이 기생연주회의 광고 행렬에 동원된 차채홍(18세)을 무심히 본 뒤 숙소인 송양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개성 여인과의 중매를 부탁한다. 주인이 송도 기생조합소 조장과 중매쟁이 김덕이와 짜고서 허원과 채홍 양쪽을 흠아비와 과부로 속여 서로 만나게 한다. 채홍의 아버지 차기문은 황해도 연안에서 생장하고, 서울 공덕리에서 누룩장사로 돈을 벌었으며, 아내 조씨와의 사이에서 남매 상순과 채홍을 두었다. 채홍은 정덕여학교, 상순은 사립보통학교 학생이었다. 그런데 차기문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가산을 날리고 고향으로 이사하게 된다. 채홍은 고향 이통정의 큰손자(13세)에게 시집보내기로 하였으며, 남매는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그만 두고 부모를 따라 낙향한다. 이사를 위해 배를 빌렸는데 선주(船主) 진치보

7) 작품 제목으로 삼은 '명월정'은 개성(開城)에 있던 사정(射亭), 즉 활쏘기를 연습하는 터에 세워진 정자였는데 현존하지는 않는다. 작품에서는 남주인공 허원이 여주인공 채홍을 처음 보는 장소로 설정되었다.

8) 개성의 이칭으로 '송도(松都)', '송경(松京)', '중경(中京)' 등이 있었다. <명월정>에 서도 '개성', '송도'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다.

9) 박이양은 호가 동계(東溪)이다. 『諺文懸吐 剪燈新話』(唯一書館·新舊書林·漢城書館, 1916)의 현토(懸吐)를 단 이로, 『개량 사성기봉』(唯一書館, 1913)의 편자로, 『신역 별춘향가』(唯一書館, 1913)의 원저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77쪽)

와 사공 장치경 등이 수적(水賊)으로 돌변해 술에 취한 차기문 부부와 상순을 강물에 던져 죽인다. 홀로 살아남은 채홍은 부모가 돌아간 날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로 진치보를 달래어 겁간을 모면한다. 장치경 등은 저회끼리 재물을 나누어 배에서 도망친다. 뒷날이 염려된 진치보도 채홍을 목 조르고 배에서 도망하는데, 채홍이 천운으로 회생한다. 이때 마침 상선(商船)을 몰고 다니던 변시복이 빈 배를 발견하고 채홍을 구한다. 변시복은 채홍을 첩으로 삼고자 친척 집에 거주하게 한다. 이를 변시복의 처가 알고 뚜쟁이 할멈과 짜고서 채홍을 송도 기생조합소에 팔아넘긴다. 변시복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자결하고, 그의 아내도 다른 남자와 놀아나다가 객사한다. 한편 강물에 던져진 차상순은 지나던 뱃사공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황해도 연안(延安)의 외가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온다. 허원이 채홍을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마침 진치보의 배를 빌린다. 그리고 도중에 장치경 등 나머지 도적까지 만난다. 허원이 이들을 잡아 경찰서로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한다. 채홍이 허원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우연히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도 만난다. 그러나 채홍은 자신의 정절이 더럽혀졌음을 한스러워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소설집인 <금고기관(今古奇觀)>에 수록된 <채소저인옥보구(蔡小姐忍辱報仇)>¹⁰⁾를 번안한 것이다. 번안 과정에서 배경이 명나라 선덕년간(宣德年間, 1426-35)에서 1911년¹¹⁾ 조선으로 바뀌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야기의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분적인 사건의 가감이 이뤄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순차적 서술이 신소설 특유의 역전식(逆轉式) 서술로 재구성되었다. 또

10) <금고기관>의 <채소저인옥보구>는 역시 명나라 말기의 소설집인 <酷世恒言>의 <蔡瑞虹忍辱報仇>를 옮긴 것이다. 양자 간에는 근소한 자구(字句)의 출입이 있을 뿐이다.

11) 허원이 개성에 가서 송양관에 투숙하며 적은 객도기(客到記)에 ‘명치 44년 8월 16일’이라고 적어, 작품 속의 현재가 1911년으로 밝혀져 있다.

신의(信義)를 내세우는 본래의 주제 위에 여자 교육, 남녀 평등, 축첩 금지, 조혼 금지 등의 개화의식(開化意識)이 덧씌워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생의 형상과 관련하여서는 채홍이 무창부(武昌府)의 창가(娼家)에 팔리는 것에서 개성의 송도 기생조합소에 팔리는 것으로 바뀌었다.¹²⁾

문학 작품은 여러 면에서 문학공동체의 관습을 따르게 된다. 남주인공과 기생의 결연담은 고소설의 전통적 모티프로 <명월정>에서 이를 수용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명월정>은 고소설에서 기생의 활동 공간으로 보편화된 중국의 강남이나 조선의 평양을 대신하여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생소한 개성을 택했다. 따라서 우선 이 작품에 그려진 송도기생의 형상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송도기생으로 팔린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여 엮어진 남녀 결연담이 강남이나 평양의 기생을 주인공으로 한 고소설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러한 차이의 배경과 의의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보아야 하겠다.¹³⁾

12) 서대석, 『신소설(新小說) <명월정(明月亭)>의 변안양상(變案樣相)』,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72·73, 1976.

13) <명월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우선 그것이 변안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변안 양상을 살폈으며, 작품에 친일(親日) 의식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서대석(1976), 앞의 논문; 최숙인, 『韓國 開化期 變案小說研究: <明月亭>·<杜鵑聲>·<海王星>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민영대, 『蔡瑞虹忍辱報仇와 明月亭의 相關性』,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74, 2010).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기녀의 자결을 다룬 일련의 작품들과 함께 <명월정>에 나타난 기녀의 자결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기도 했다(윤정현, 『1920年 前後 韓國小說에 나타난 죽음 樣相考: 妓女の 自殺을 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會, 『韓民族語文學』 13, 1986). 또 신소설의 범죄 서사를 공식적 권위를 지닌 법적 판관이 해결자로 나서 는 경우와 일정한 약점을 지닌 개인적 정탐자가 해결자로 나서 는 경우로 나누고 <명월정>을 후자에 포함시켜 고찰한 연구도 있다(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또한 유사 사건의 반복 제시, 동일 장면의 반복 서술을 신소설의 한 기법으로 보고 <명월정>에서 그러한 기법이 활용된 양상을 알아보

2. 작품 밖의 송도기생

현실이나 <명월정> 이외의 문학작품 속에서 송도기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명월정>의 송도기생이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규보(李奎報, 1168-129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5의 『고율시(古律詩)』에는 <이웃 기생집에 불이 나다(隣妓家火)>라는 시가 실려 있다.

連天赫焰劇霞丹	하늘에 닿은 불꽃 노을처럼 붉고
暗聽煙中哭翠鬢	연기 속 미인의 곡소리 희미하게 들리누나
回祿無情何大甚	무정한 화재 어찌 그리 심하여
粧臺舞館揚燒殘	화장대며 무관이 모두 타버렸네

이능화(李能和)는 이 시를 두고 그의 저서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5장 「고려인사(高麗人士)의 애기(愛妓)」에서 “당시의 송도에는 재상과 기생이 한 마을에 섞여 살아, 지금의 경성에 기창(妓娼)이 지정된 곳에 살지 않고 방방곡곡에 흩어져 때때로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그 풍속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다.¹⁴⁾ 고관(高官)을 지낸 이규보의 이웃에 기생이 살았을 만큼 고려 시대에 기생이 매우 번창했다고 본 것이다.¹⁵⁾

기도 했다(장노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반복서술의 양상과 기능』,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1).

14) 이능화 저·이재근 역,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56쪽.

15) 그러나 이 시를 이규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썼는지가 고증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송도기생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황진이(黃眞伊)이다. 우리의 관념 속에 송도기생과 황진은 거의 등가로 자리 잡고 있다. 황진이의 본명은 황진(黃眞)이며, 기명(妓名)은 명월(明月)이었다. 생몰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산군(재위 1494-1506) 말년에서 중종(재위 1506-1544) 초년 사이에 태어나서 명종조(재위 1545-1567)에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어우야담(於于野談)』, 『송도기이(松都奇異)』, 『금계필담(金溪筆談)』, 『중경지(中京誌)』 등의 여러 문헌에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우선 그녀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황진이의 모친 현금(玄琴)이 처녀 시절에 병부교(兵部橋)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내가 그녀의 자색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처녀들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그녀에게 마실 물을 떠 달라고 했다. 황진이의 모친이 바가지에 물을 떠 주자 사내가 한 모금 마시고는 그녀도 마셔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기하게도 물이 아니라 술이었다. 두 사람이 기이한 술기운에 취해 사랑에 빠지고, 이후 그녀는 임신하여 황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황진이가 열다섯 되었을 무렵에는 이웃에 사는 총각이 그녀를 보고 상사병이 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고 말았다. 총각의 관을 내가려는데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황진이에게 부탁해 총각의 뉘를 위로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황진이가 스스로를 일컬어 서화담(徐花潭), 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고 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황진이가 죽을 때에는 자신이 못 남성들의 마음을 산란케 한 것을 속죄하는 뜻으로 관을 쓰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그냥 땅에 버리라 했다고 한다. 버려지가 자신의 시신을 파먹는 것을 보며 후세 여인들이 경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황진이가 지었다는 시조와 한시도 여러 편 전하고 있다.¹⁶⁾

그런데 황진이를 빼고는 야담, 소설을 망라한 옛 이야기 속에서 송도기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생에 얽힌 이야기 중에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하는 식으로 지명을 밝히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 보다는 기생이 소속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것이 많다. 지역으로 보면 단연 평양기생의 이야기가 많고, 그 밖에 호남, 호서, 영남, 영동 지역과 함께 관서, 관북 지역 여러 고을의 기생 이야기도 존재하지만, 송도기생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¹⁷⁾

그런 가운데 <명월정>과 가까운 시기인 1914년도에 나온 소설 <청년회심곡>에서 송도기생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남주인공 김진성은 상인에게 빌려준 돈 10만 냥을 받아오라는 부친의 명을 받고 송도에 올라 갔다가 그곳의 명기 월낭(月娘)에게 반해 함께 지내게 되었다. 월낭의 뜻이 고결해 육체적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고 있던 진성이 평양에서 온 경패라는 기생에게 빠지게 된다. 경패는 모친과 싸고서 진성의 돈을 모조리 뜯어내 도망했다. 월낭은 폐인이 되어버린 진성을 거두어 완쾌시키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그가 고향의 부모님께 돌아가도록 했다. 진성은 서울에 와서 과거에 급제했다. 그 사이 송도 유수(留守) 이춘화가 월낭에게 수청을 강요하여 그녀가 암자로 피신했다. 진성이 이 사실을 알고 이춘화를 탄핵했다가 도리어 전라도 추자도로 유배를 가게 되며 그곳에서 <청년회심곡>을 짓는다. 후에 이춘화가 역모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하고, 진성이 해배되어 월낭과 재회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16)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2002), 앞의 책, 80-90쪽; 이상원, 『기생문학산고』 1, 국학자료원, 2012, 36-56쪽.

17) 시가, 전기(傳記), 설화, 소설 등 고금(古今)의 기생 관련 작품을 정리한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이능화 저·이재곤 역(1992), 앞의 책; 조광국, 『기념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이상원, 『기생문학산고』 2, 국학자료원, 2012.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 28장 『기녀의 지방적 특색』에서는 안동(安東), 관동(關東), 함흥(咸興), 영흥(永興), 제주(濟州), 의주(義州), 평양(平壤), 북청(北靑) 기생의 특색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개성 기생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20세기를 전후해 신문, 잡지 등의 근대 매체에 기생에 관한 글이 종종 게재되었다. 기생을 소개할 때에는 으레 그녀의 소속 지역을 밝히게 마련인데, 그 중 개성은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례로, 1914년도(1월 18일-6월 11일)에 『매일신보』는 『예단일백인(藝壇一百人)』이라는 연재물을 통해 총 99명의 예술인을 소개했다. 그들 중 92명이 기생이었는데 그 가운데 개성에서 활동하는 기생은 단 한 명도 없다.¹⁸⁾ 이로 보면 조선 시대로부터 식민지 시대 초기까지 이야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개성의 기생은 타 지역의 기생에 비해 수가 적거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명월정> 안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작품 중에 『개성신보』¹⁹⁾ 87호의 『축 기생연주회』²⁰⁾라는 기사가 인용되어 있는데, 다음은 그 중의 일부이다.

18) 다만 개성 출신으로서 한양에서 활동하는 기생 한 명이 있을 뿐이다. 『예단일백인』은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김영희, 민속원, 2006)에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19) 개성신보(開城新報)는 1908년 6월 12일에 일본어 신문으로 창간되었으며, 창간자는 개성의 송명학교 교사 출신인 오카모토 토요키치(岡本豊吉)였다. 1927년 10월 말경에 이노우에 오사무(井上収)로 사장이 바뀌면서 ‘극동시보(極東時報)’로 개제(改題)되었다. 언제까지 발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31년 12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여전히 이 신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본사 역할을 하는 발행소는 개성에 있었고, 인쇄소는 지국의 형태로 경성에 있었다.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 신문에 관한 연구: 1881년부터 1945까지 발행된 일본인 경영 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1쪽)

20) ‘축 기생연주회’의 ‘축’은 ‘祝’일 수도 있고 ‘逐’일 수도 있겠다. 기사의 내용은 기생연주회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祝’으로 본다면 그것은 반어적인 의미로 쓴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원릭이 신문은 기성신보 데팔십칠호인데 재미있는 직담이 있어서 일업
은 작자가 가지고 와서 보다가 이저바리고 간 것이다. 전면에는 일언란니오
후면에는 조선문인데, ‘축 기성연주회’란 문데 아티 ‘독낙즈괴셔’라 하였는데,
첫 비두브터 재미가 있는 고로 소리를 너여 랑독하니 그 전문이 여좌하더라.

“기성은 본릭 지리지향이라. 네전브터 기성은 업고 여간 뭍음녀를 리덕이
니 김덕이니 칭호가 있더니, 근릭에는 린근 읍 기성들이 모여드러 산디옥을
뎨드러 낫코 혼 놈이라도 썩지고 보면 녹여 먹는 터이에, 수년 이리로는 경
찰셔 취조로 ‘치옥영업’이라 쓴 등 단 집이 기성집이라. 근년에는 기성조합소
를 조직하여 규칙도 뎨드러 경찰셔에 인허도 맞고, 쏘 스무소도 덩흔 후에
소비도 적지 아니함으로 연주회를 주최하였스니……21)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인즉 개성에는 예로부터 기생이 없고 ‘덕이’라고
부르는 매음녀만 있었는데²²⁾ 근래에야, 즉 이 소설의 배경 시대인 1911년
즈음에야 인근의 기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송도기생’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지만 실은 그것이 조선의 가
장 걸출한 기생 황진이로 인한 것이고, 그 밖의 송도기생은 이야기에서나
현실에서나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명월정>
에서 주인공을 통해 송도기생을 그려 보인 점은 이채로운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21) 朴頤陽, 『명월정』, 唯一書館, 1912, 35쪽.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이하 작품
서지는 『명월정』으로만 표기.

22) 이능화는 “도성의 갈보(蝸甫)는 송도의 덕이(德伊)와 공통되는 것으로, 덕이는 속명
으로 진드기이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유녀(遊女)를 통틀어서 갈보라
일컫는다고 하고, ‘갈’은 밤에 나와서 피를 빨아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라고 했다. (이
능화 저·이재곤 역(1992), 앞의 책, 442쪽)

3. <명월정>에 형상화된 송도기생

<명월정>은 풍속기(風俗記)로서의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개성 여인 및 개성 사람에 대한 당시 세간의 인식, 특히 개성과 관련된 당시의 세태와 풍속, 속어 등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²³⁾ 무엇보다 이 작품은 여주 인공이 기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개성 기생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 기생조합소

채홍이 자신을 첩으로 삼으려는 변시복에게 이끌려 가서 인천의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가 변시복의 처와 뚜쟁이 노파에게 속아 팔려간 곳은 송도 기생조합소였다. 기생조합소와 관련해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년 이리로는 경찰서 취조로 ‘치옥영업’이라 쓴 등 단 집이 기싱집이라. 금년에는 기싱조합소를 조직하여 규칙도 민드려 경찰서에 인허도 맞고, 또 스무소도 덩흔 후에 소비도 적지 아니함으로 연주회를 주최하였스니.....²⁴⁾

밤 열흔 점 되어 삼스 인이 작축하야 드리오면서, “김봉이 아라 인나? 일교자 혼 상, 술 두 주발 짜슨 되어 가져와.” 흐거늘, 반겨 보니 이 사름들은 기싱조합소 조장, 총무, 서귀, 스무들이라.²⁵⁾

23) 선행 연구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풍속, 속담 등이 정리되었다. (최숙인(1997), 앞의 논문, 136-140쪽)

24) 『명월정』, 35쪽.

25) 『명월정』, 20쪽.

이씩 기생조합소 조장이 사무소로 도라와 치혹이 보낼 모계를 씬일식 사무를 부른다.

(조) 여보 스무. 스무는 이곳에 오릭 사라스니간 알겠지. 썩 도저하게 썩장 이 노릇하는 계집을 톨일 오전에 터진성 막바지 ‘치옥영업(置屋營業)’이라 쓴 등 달인 집으로 다녀오.²⁶⁾

인용문 가운데 나오는 ‘치옥(置屋)’은 일본어 ‘오키야(おきや, 置屋)’에서 온 말로 기생이나 창녀를 두고 영업하는 흥등가를 이른다. 조선말로는 기생집이라 했던 이곳이 ‘치옥영업(置屋營業)’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 왔던 사실이 작품 중에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생집이 ‘금년’(1911년)에는 경찰서의 인허를 받아 기생조합소를 조직했다고 한다. 본래 조선의 기생은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였다.²⁷⁾ 그러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인 1908년부터는 경시청(警視廳)의 지침²⁸⁾에 따라 기생 영업을 하는 이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한성기생조합소, 평양 예기조합 등이 생겨났다.²⁹⁾ 작품이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 1911년에는 개성에도 기생조합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기생조합소의 조직은 조장·총무·서기·사무 등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생조합소의 조장이 치옥과 자연스레 왕래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생조합소와 치옥

26) 『명월정』, 24쪽.

27) 소설 <삼선기>에서는 기생 흥도화와 유지연이 도학군자였던 이춘풍을 모가비로 내세워 사사로이 교방(教坊)을 조직하는데, 이처럼 일부 기생이 관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실상이었을 수 있다. (조광국,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115-147쪽)

28) 1908년 9월 25일에 경시청령 제 5호로 ‘기생단속령’이 제정되었으며, 그 2조에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조합을 설(設)하고 규약을 정하여 경시청에 인가를 수(受)함이 가함.’이라고 하였다.

29) 이후 1917년부터는 기생조합의 명칭이 일본에서 써온 말인 ‘권번(券番)’으로 바뀌게 된다. (김영희(2006), 앞의 책, 1·4장)

이 서로 긴밀히 결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시청의 계도로 기생조합소가 설립되었던 만큼 경시청, 기생조합소, 그리고 치옥은 일종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리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속의 다음 부분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본인은 기성군 서부면 관전리 이십스통 십호에 사는 김우옥이오. 치옥영업ㅎ으며, 더 계집의 성명은 차치ㅎ이오. 인항셔 다리고 기성으로 가는 길에 셔 너무 고집스러워 지금 꾸짖는디, 이 여러분은 웬 식둑으로 이럿케 돌나섯 단 말이오. 경찰관리씨셔 헛쳐 보느시구료.”

ㅎ거늘 순스는 듯기에 주소·성명이 분명ㅎ고, 쯔 밋음 영업ㅎ는 자가 범틀상으로 취조ㅎ지마는 계집의 성명이 쯔 분명이 인천 제물포 갈보 명식이 있고, 그 자의 말이 활발ㅎ 것이 조금도 의심 업고, 쯔 괴적 소리 나며 인천 츄가 올라오거늘, 경찰상에 도로 방히라 ㅎ며 여러 사름을 헛터 보닌 후…
…30)

개성에서 치옥영업을 하는 김우옥이란 자가 인천에서 채홍을 사서 데려가는 장면이다. 김우옥이 우악스럽게 채홍을 끌고 가려 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경찰이 개입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김우옥이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밝히고 치옥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당당히 말하자 경찰은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오히려 모였던 사람들을 해산시킨다. 경찰의 인가를 받은 기생조합소 및 그와 연결된 치옥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여 준다.³¹⁾

30) 『명월정』, 69쪽.

31) 일제시대 기생과 경찰의 유착에 관해서는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2002), 앞의 책, 184-188쪽 참조.

2) 기생연주회

작품 중에 송도의 기생연주회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 있다. 당시 기생연주회의 흥성함을 묘사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부분을 옮겨 본다.

명월정(明月亭) 우혜 일위 소년이 하이칼나 양복에 파나마 모즈 쓰고 텃연히 셔셔 구경호는디, 그 압골목에 울긋불긋 괴를 들고 난우난 난우난, 덩덕쑹 덩덕쑹, 호각 소리 쉼르락호더니, 인력거 우혜 옷둑 셔셔 머이라 머이라 호는 것은 이썩 기생연주회에서 광고호는 판이라. 댜 뒤 인력거에 호 기싱이 철턴호 한을 썩여 슬픈 눈물을 먹음고 짜만 굽어보며 스윌녀 가는 것을 엇진 곡절을 알고져 호더라.

이썩는 추팔월 땅간이라. 송도 기생연주회가 하도 구경스러운 고로 경의선 승객들이 인산인회를 일우워 기성 남티문 밧 도고 근너 럼동 연극장으로 도라드러 입장권 사가지고 일·이·삼등석이 터어지게 끼여 안져 각종 연극을 정신업시 구경호는 등쌀에 썩 느러진 양복 입은 자이 별덕 니러셔셔 호는 말이, “예도 게로고, 서울 원각스·연흥스·단성스 갓호라면 아즉 니도 아니 낫다. 털도 썩지 안코 거져 먹는 모양이로곤.” 헤치고 나서 인력거 부른다.³²⁾

……오날날 기생연주회신지 되었는지라. 그 목적을 말호즈면 텃산디산호것 업시 공방썩(돈)만 싱기란 것이라. 그러나 이 경제 곤난호 시디에 교육비 라던지 자선사업이라던지 연조호라면 일푼 척리호 수 업다면서 삼등석에 오십전, 이등석에 십십전, 삼등석에 십오전이라도 입장권 팔 썩에는 호 손에 몽치 드러도 손 다키는 셔슬에 눈 썩지게 되니, 이것은 무슴 욕망이 잇는가 연구호여 불일이라.³³⁾

32) 『명월정』, 2-3쪽.

33) 『명월정』, 36쪽.



<명월정> 초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표지. 극장 앞에서 '기생연주회'라는 붉은 깃발을 내걸고 광고를 하고 있고, 그 한쪽에 채홍이 인력거에 타고 있는 모습을 허원이 명월정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

개성 정거장에 내린 허원이 맨 먼저 맞닥뜨린 것은 명월정 부근에서 울긋불긋한 깃발을 내걸고 풍악을 요란하게 연주하며 송도 기생연주회를 광고하는 현장이다. 광고하는 마당에 인력거를 죽 늘어세웠는데, 그 끝에 송도 기생조합소에 갓 팔려온 채홍도 인력거에 태워져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³⁴⁾ 경의선을 타고 온 승객들은 이 기생연주회를 보고자 일·이·삼등석의 입장권을 사서 자리가 미어터지게 연동 연극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1910년경부터 경향(京鄕)의 기생들이 극장에서 노래, 춤, 연극

34) 이에 앞서 채홍이 기생조합소의 직원과 선배 기생들로부터 기생 노릇을 하도록 갖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기생연주회의 광고에 동원된 것이다.

등의 공연을 펼치는 기생연주회가 성행했다. 기생연주회는 공연으로 수익을 올리고, 주최 측 소속의 기생을 홍보하며, 한편으로는 기생 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기생연주회에서 얻은 수익을 고아원, 학교, 재해 지역 등에 기부한다는 기사들이 보이며, 또한 기생연주회 측에서 공익을 위한 기부를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보이기도 한다.³⁵⁾

두 번째 인용문은 앞서 소개한 『개성신보』 기사 중의 다른 부분이다. 여기서는 기생연주회로 돈을 벌고자 하는 상업성을 비판하고, 또 교육사업이나 자선사업 등의 건전한 사업에는 전혀 기부하지 않으면서 기생연주회 관람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대중들을 나무라고 있다. 이것은 작자 자신의 의견이자 당시의 기생연주회에 대한 일반적 여론이기도 할 것이다.

3) 인신매매

채홍은 자원해서 기생이 된 것이 아니라 변시복의 처와 뚜쟁이 노파가 모의하여 그녀를 기생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 과정이 작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리 된 일은 변가의 계집이 로파의 훈수덕으로 파라먹는 것인데, 로파는 인천항구 바닥에 주장이로 유명한 음물노 룡동, 화기동으로 싸다니며 갈보파는 일에는 싸질 짝이 업더니, 일일은 송도 기청조합소에서 식가라 드는 모양으로 인항에 와서 계집 하나를 사가려 흥느덕 로파가 엇더케 흥던지 거미를 셔려 흥던 판에 변가의 계집에 청홍을 넘어 된 말, 아니 된 말 숙덕숙덕 흥다가 가장 돌보아주는 듯시 멀니 주체하여 돈 밧고, 악쓰고 드러서면 계가

35) 『대한매일신보』, 1909.4.1 ; 『대한민보』, 1910.2.22 ; 『황성신문』, 1910.4.10 ; 『매일신보』, 1910.9.9, 1911.10.11, 1912.27 (김영희, 앞의 책, 26-29쪽)

엇지 홀 수도 업고, 또 남의 손아귀에 들고 보면 툭 쫓츠 가던 기가 짐용
치어다보는 모양이 되리라 호고 건달 놀과 약도호고 우각동에 가서 인력거
태여 휘모라 소새 정겨장식지 가서 계서는 츠 톱여 송도로 보늬는 그썩라.³⁶⁾

인천에서 뚜쟁이 노릇을 하는 노파가 송도 기생조합소 측이 인천에 와
서 기생 한 명을 사 가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거간을 해보려던
참에 변시복의 처가 채홍을 팔아넘겨 달라는 말을 듣고 흥계를 꾸뎠던 것
이다. 말하자면 채홍은 인신매매에 걸려들어 기생으로 팔린 것이다. 1900
년대 초반 평양에 기생양성소가 설립되었고 이곳에 많은 학생들이 유치
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³⁷⁾ 자원하여 기생이 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신매매와 같은 음성적 경로로 기생이 되는 이들
도 있었음을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기생 영업에 대한 비판

<명월정>에서는 기생 영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 중 두 부분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본인이 기싱연주회에 덕호야 선후칙(先後策)을 드리는 것은 다만 호출장
에 축스호노니 일차, 이차로 지우수십차호면 기성에 현지호 기싱은 기기 작
부지락을 엇을 것이오, 여간 리덕이니 김덕이니 호는 칭호도 종즈가 업슬
터이라. 또 약인물은 신법령에도 자지호거니와 기싱조합이니 무엇이니 호는
자들은 회기호여 선량호 영업을 호를 것이오, 기싱들은 이 조흔 시디에 녀즈의

36) 『명월정』, 67쪽.

37) 기생양성소는 흔히 기생학교로 불렸다. 193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기생양성소 규정』에는 기생양성소의 정원을 학년당 60명, 3학년까지 도합 180명으
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2002), 앞의 책, 190-201쪽)

상당한 학문을 비와 기명 부인이 되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인류의 하급에 썩어지지 안케하기를 바라노라.³⁸⁾

조장이 혼흙 싱각하더니 선선한 말노……“려관영업하는 자는……명예에 손상되거나 법물에 저촉되는 일은 도모지 아니 하여야 이 혁신 시대에 부지 할 것이오. 중미 위업자는……풍속이 부패하고 인심이 교활하여 심지어 우마홍성갓치 돈 받고 남의 일평생을 그르게 인도하니 적악함이 적지 안코 었지 인류에 치리오……치옥영업하는 년놈은 돈견(豚犬)만 갖지 못하지. 계집을 나루비갓치 하로 멧 놈식 가라타게 하고, 화칙(花債) 덩한이 있느니 노리치는 멧 원이니, 경찰서에 위험물(危險物)갓치 토요일마다 미독(梅毒)이 있고 업는 것을 검수하게 하며,³⁹⁾ 었더하던지 꺾가망신하는 즈식이 만키로만 바라고 있스니 요사이에 야견박살(野犬撲殺)령 나리듯시 쟁그리 죽여 업실 것들이지. 나갓치 천한 놈도……이 몫을 조합에 명식이 조장이니 무엇이니 하다가 이 일을 당하였지……” 하고 부리나케 조장 청원서를 써서 사면하고 미가륙덩하야 다 세움하고 선량한 영업을 하였더라.⁴⁰⁾

첫 번째 인용문은 역시 『개성신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서는 기생과 기생조합소를 없앨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생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

38) 『명월정』, 37-38쪽.

39) 일본에서는 1876년부터 유곽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매독(梅毒), 임병(淋病) 등의 성병을 검사받도록 하고, 성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휴업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다. 조선에서도 1906년부터 일본의 이 제도를 도입해 매춘부를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했다.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2002), 앞의 책, 196쪽) 이 사실이 황현(黃玗)의 문집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기록되어 있다. “창녀와 기녀들에게 ‘매음세(賣淫稅)’를 정했으니 매년 기생 1인당 36원, 창녀 일인당 24원이며, 매달 의사를 파견하여 ‘양매창(楊梅毒)’을 검사하게 했는데 이는 일본의 풍속을 따른 것이다(定娼妓賣淫稅, 每年妓一人三十六元, 娼一人二十四元, 月派醫師, 檢治楊梅毒, 從倭俗也).” (『매천야록(梅泉野錄)』 권5) 이 글은 1906년에 작성된 것이다.

40) 『명월정』, 113-115쪽.

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기생조합소의 조장이 채홍이 그곳에 팔려왔다가 벗어나게 된 저간의 내력을 듣고 마음을 누우치며 하는 말이다. 기생과 결탁된 여관영업, 중매영업, 그리고 무엇보다 치욕영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자신부터 기생조합소의 조장을 사직한다. 기생 영업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역시 작자 자신의 생각이자 당시의 일반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작인 <채소저인육보구>에는 인간의 신의, 여성의 정절이 주제로 형상화되어 있으며⁴¹⁾ 이것이 <명월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명월정>은 여기에 개화사상을 덧입혀 여성 교육과 남녀 평등의 중요성, 조혼과 축첩제도의 폐해, 기생 영업의 문제점 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교육, 남녀 평등 등에 관한 것이 인물의 대화나 연설을 통해 잠깐씩 언급된 것과 달리 기생 영업에 대한 비판은 채홍이 기생으로 팔렸다가 구원받는 중심 사건과 당시의 기생 영업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기생에 대한 비판은 <명월정>에서 새롭게 구현한 또 하나의 주제이다.⁴²⁾

이처럼 <명월정>은 1910년대 초반의 송도기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생 영업의 폐단을 비판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기생조합소, 기생연주회 등 당시 조선의 기생 업계에 형성된 신평속이 개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문학 작품 속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굴절이 생겼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송도기생의 실상을 담고 있

41) 서대석(1976), 앞의 논문.

42) <명월정>에서 기생 영업에 대한 비판이 중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지 못했다.

는 점은 이 작품의 큰 의의이다.

4. 송도기생의 설정 배경

<명월정>은 야담이나 고소설 등 전통서사에 잘 보이지 않았던 송도기생을 소재로 다루었다. 새로움과 익숙함의 적절한 조합은 소설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미덕이다. 소설이 새로우면서도 지나치게 생경하지 않고 익숙하면서도 너무 진부하지 않아야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명월정>은 기생과 남성의 결연이라는 익숙한 소재에 송도기생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함으로써 이 점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명월정>에서 이처럼 공간배경을 개성으로 하고 주인공을 송도기생과 연결시킨 의의와 효과가 다만 작품에 신선함을 부여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1) 송도여인의 긍정적 이미지

기생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기생은 남성들이 성적 욕망을 품고 동경하는 대상이면서, 그런 남성조차도 천시를 하는 모순적이 존재였다. 기생은 훌륭한 예능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도 자기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는 어려웠다. 기생이란 신분에 대해 자타를 막론하고 항상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⁴³⁾

특히 평양기생에 대해서는 양면적이 인식이 몹시 강해서 그들이 이야기 속에서 남주인공과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는 상대역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

43) 특히 다음의 책을 통해 기생 자신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기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만, 동시에 남주인공을 폐가망신시키는 악역이 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았다. 소설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으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고 종의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한 추월이 평양기생이었다. 야담 <목단탈재(牧丹奪財)>(『촌담해이(村談解頤)』), <혹요기책실축지인(惑妖妓冊室逐知印)>(『청구야담(靑邱野談)』), <楊洲에 一廉姓者>(『파수록(破睡錄)』)에서도 평양기생은 모두 부정적인 형상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남자를 호리고, 재물을 좇으며, 정의(情誼)를 배신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⁴⁴⁾

1900년대에 들어서는 기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었다. 본래 조선에서는 가무(歌舞)의 재주를 파는 예기(藝妓)와 몸을 파는 창기(娼妓)가 구분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구분이 흐려져 기생이 모조리 창기로 취급되고, 그들이 예능인으로서 담당해 온 역할은 잇힌 채 사회악으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남녀평등과 자유연애를 이상으로 삼았던 당시 사회의 계몽적 분위기가 남성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기생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기생의 사회적 역할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만 식민지 땅에 있는 욕망의 대상 내지는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일체의 왜곡된 시선과 그에 따른 정책도 이 같은 기생의 몰락에 한몫을 했다. 당시의 언론도 기생의 철퇴를 강고하게 주장하곤 했다.⁴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평양기생의 악행을 그린 신소설이 여럿 나왔다. 재물에 눈이 멀어 양아들을 독살하고 남편의 소실을 살해하는 <화상설(花上雪)>(1912)의 평양집, 남성을 속여 재산을 모조리 빼앗은

44) 조광국(2000), 앞의 책, 136-142쪽.

45) “妓生과 娼妓와 酌婦는 惡魔같은 妖物”이라고 표현한 『東亞日報』, 1927년 2월 15일자 기사; “朝鮮 全道에 몸과 노래를 팔아서 남자의 지갑을 相對로 生計를 세우는 妓生, 娼妓 등 花柳村의 食口”라고 표현한 『東亞日報』, 1924년 5월 9일자 기사; 『娼婦撤廢論』, 『新民公論』, 1921 등.

뒤 달아나는 <청년회심곡>(1914)의 경쾌, 애욕을 채우고자 남녀관계를 형성하는 <눈물>(1923)의 평양집, 둘째 부실(副室)로서 간악한 모계를 써서 첫째 부실을 내쫓는 <구미호>(1922)⁴⁶⁾의 평양집이 모두 그렇게 묘사된 평양기생 혹은 평양기생 출신의 여성이다.⁴⁷⁾

<명월정>의 채홍은 신의와 정절의 여인이다. 그런 채홍이 이야기의 전개상 기생의 집단에 빠져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가 오염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때 작품에는 채홍을 되도록이면 부정적 이미지가 덜한 기생과 연결시킬 방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특히 평양기생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고, 대신 송도기생이 적합한 대상이 된다. 송도여인은 평양기생과 대비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부터 평양은 대동강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유경(柳京)이라 불렀고, 개성은 소나무가 많아 송도(松都)라 불렀다. 버드나무와 소나무가 각각 풍류와 절개를 상징하듯, 평양은 풍류에 뛰어난 기생을 많이 배출한 색향(色鄕)인 데 비해 송도는 절개가 곧은 여성을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 알려졌다.⁴⁸⁾ 앞서 언급한 <청년회심곡>은 바로 이 같은 평양기생과 송도여인의 대비적 성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남주인공 김진성의 신세를 망치는 것은 평양기생 경쾌이고, 그를 거둬 입신시키는 것은 송도기생 월낭이었다.

<명월정>은 송도여인에게 부여된 이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 그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허

46)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작품인 <구미호>를 제보해 준 김성철 선생께 감사드린다.

47) 이상 두 문단은 다음의 논문을 많이 참고했다. 정혜영, 「근대의 성립과 기생의 몰락: 근대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20, 2007.

48) 황해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13, 2007, 75쪽.

원의 친구 우주사는 송도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으면서 허원에게도 자신과 같이 송도여인을 첩으로 둘 것을 적극 권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첩과 송도여인에 대한 칭찬을 아주 길게 늘어놓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아래와 같다.

(우) 송도집 자기 구슬은 또 말할 것 업고 남의 첩된 자의 모범될 것이 잇슬 썬더러 어나 덩실부인이 그러흘나구.

(허) 무엇이 썬 도져허더란 말인가. 좀 드리보세그러.

(우) 이 경계 곤난흐 시덕에 근면저축심과 절용결검흐는 것이지.

(허) 제 낭탁이나 아니허드란 말인가.

(우) 보통으로 말허자면 남의 첩된 자들이 얼끗흐면 흐는 말이 밧 파라는 살 썬에는 이밥 먹자는 것이니 알쓸살쓸할 것 무엇 잇나. 싱기면 쓰자 먹자, 하늘 아리 중방 드렸나, 언덕에 난 기름일세 흐지 안나. 이 사름아 안 그리허데?

(허) 그러코 보면 첩용처에 등달 것 무엇 잇겠느.

(우) 또 한복홀 일이 잇데. 집안을 털썩흐게 히 논는 것이지. 서울 톱싱이니 무엇이니 흐는 계집들은 그 거쳐흐는 집을 보면 평상에 비질 혼 번 아니 흐고 마루 우혜, 방문 압혜 신 버셔놋코 어지런진 기물도 쓰러바리지 아니흐여 위싱 구루마을 곳 드러디이게 되는데 우리 적은집에는 엇더허던지 춘추 덕청결 석면 순사들이 와서는 병어리되고 가데그러.⁴⁹⁾

채홍은 고향이 황해도이고 성장한 곳은 서울이며, 송도기생의 무리와 섞여 지낸 것이 일시적인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당시의 기생, 특히 평양기생이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몰들지 않고 송도여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등에 업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49) 『명월정』, 10-11쪽.

2) 작품의 고발성

<명월정>에서 허원은 기차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을 떠나 개성에 가서 채홍을 만난다. 여행을 떠난 남자주인공과 타 지역 기생의 만남은 고소설에 면면히 이어져 온 모티프의 연장이다. 남주인공을 둘러싼 처첩 간의 투기와 모해 역시 고소설의 상투적인 모티프이다. 여기에서 피해를 당하는 쪽은 선인이고 위해를 가하는 쪽은 악인이며, 악인에게는 시비(侍婢)나 머슴 같은 조력자가 붙는 것이 보통이다.⁵⁰⁾ <명월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니, 변시복의 본처가 첩으로 들어온 채홍을 미워하여 뚜쟁이 할멈과 작당하고 그녀를 기생으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채홍이 남주인공 대신 악인에 가까운 변시복의 첩이 되어서 당한 일이라는 것이지만, 변시복의 처와 뚜쟁이 할멈의 모습은 고소설에서 친숙히 보던 그대로이다. 그러나 채홍이 고소설에 포획된 중국 강남이나 조선 평양의 기생이 아닌 개성의 기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송도 기생조합소의 채홍을 주인공으로 한 결연담은 강남이나 평양의 기생을 주인공으로 한 고소설의 결연담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명월정>의 전반적 성격, 작품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

남주인공과 기생이 만날 때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으레 주변 공간에

50) 황소저가 청파(聽罷)에 발연대로(勃然大怒) 왈, “천기(賤妓)를 세간(世間)에 두고는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세간에 서지 못하리라.” 하고 즉시 백금을 내어 춘월을 주며 바빠 계교를 행하라 하니, 춘월이 이에 변복(變服)하고 장안(長安)을 편담하여 자객을 구하러 다니더니, 일일(一日)은 일개 노랑(老娘)을 데리고 와 부인에게 뵈거늘, 위씨가 그 노랑을 보니, 신장이 오 척이 지나지 못하고 머리털이 귀밑을 덮었으며 별같은 눈에 맹렬한 기운이 어렸으니 보기에 준예(俊父)한지라. [향목동 세책 『옥루몽』 권17(1908년 필사), 17장(이운석·최우영 교주, 『옥루몽』Ⅱ, 경인문화사, 2007, 38쪽)] <옥루몽>에서 양창곡의 부인 황소저가 첩 벽성선을 투기해 자신의 모친 위씨, 시비 춘월과 작당하고 벽성선을 해칠 자객 노랑(老娘)을 불러들이는 대목이다.

대한 낭만적 묘사가 선행하게 된다. 여행 중의 남주인공이 기생이 있는 청루에 접근하며 보게 되는 주변 풍광을 운치 있게 묘사하는 것이 흔한 방식이다.⁵¹⁾ <명월정>에도 이에 대응되는 부분이 있으니, 개성의 명승지를 열거하는 다음의 대목이 그렇다.

집으로 도라와 횡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남딴문역에 나아가 복형 열차를 탑승하고 기성 정거장에서 차에 내려 인력군을 부른다.

(허) 이야, 송도 구경하느면 어디부터 보고 어디로 어디로 가면 조컨느?

(인) 소셔문통으로 주천교 건너 북으로 주작헌 너머서서 송악산턱까지 드러가서 만월티 도라보옵시고, 산지현으로 도라 광문 암 드러서서 자하동 어귀에 최구직 선싱(崔九齊先生)의 집터 보시고, 부산동으로 곳 올라가 록수는 잔잔 흐르는 우혜 천초각(千初閣)과 장송은 락락 느러진 속에 거북바위에 데명흔 것도 보옵고, 도서정(圖書亭)에서 잠깐 홀각하신 후에 곳 나리다라 오관서원 압호로 고려교 건너 북부통로 당상다리 도로 건너 정화녀학교 뒤로 명월정에 올라서서 만호장안 굽어보시고, 겨서 곳 관덕정으로 성 너머 산길노 송양서원으로 가서서 정충신의 화본이나 보시옵고……⁵²⁾

51) <옥루몽>에서는 양창곡이 강남홍을 만나기 직전 압강정 잔치에 참례하러 가는 길에서 다음과 같은 풍경 묘사가 이뤄진다. 「화설. 공자가 동자를 데리고 수십 리를 행하여 가니 산천이 명려(明麗)하고 물색(物色)이 변화하여 곳곳이 경개절승(景概絶勝) 하더라. 공자가 심중에 헤오되, “압강정(壓江亭)이 반드시 물가에 있을 것이니 내 물을 따라 가보리라.”하고, 또 수리(數里)를 행하며 강색(江色)이 광활하고 산색이 아름다워, 백운(白雲)은 취수(翠水)에 어리고 백구(白鷗)는 명사(明沙)에 벌였으니 압강정이 멀지 않음을 알지라. 다시 수리를 행하니 풍편(風便)에 사죽(絲竹) 소리 은은하게 들리며 과연 일좌(一座) 패루(牌樓)가 강변에 표묘(縹渺)하고 정하(亭下)에 거마(車馬)와 사람이 물 끓듯 하거늘, 정상(亭上)을 바라보니 푸른 기와에 붉은 난간이 반공(半空)에 표묘하고, 금자(金字)로 현판(懸板)에 썼으며, “압강정”이라 하였더라. 아름다운 풍류와 청아한 노래 소리 누대(樓臺)를 흔들거늘……」 [향목동 세책 『옥루몽』 권2(1908년 필사), 1장(이운석·최우영 교주, 『옥루몽』 I, 경인문화사, 2006, 37쪽)]

52) 『명월정』, 15-16쪽.

개성 정거장에 내린 허원이 인력거꾼을 불러 개성의 명승지를 묻자 인력거꾼이 이에 길게 대답하는데, 인용한 부분은 그 중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서 허원과 인력거꾼의 문답 형식은 <춘향전>에서 남원의 명승지를 구경하려는 이도령과 방자 간의 문답을 연상시킨다.⁵³⁾ 또 내용 면에서는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등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관습적으로 나오는 평양 명승지의 열거식 묘사와 흡사하다.⁵⁴⁾ 그런데 개성의 명승지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남주인공과 기생의 만남을 이끄는 고소설의 일반적 풍경 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남주인공이 직접 풍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인력거꾼이 외우는 말을 귀로 들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허원은 인력거꾼이 일러준 곳들은 나중에 둘러보기로 하고 곧바로 여관에 들었다가 뒤에 중매로 나선 장덕이의 집에서 채홍을 만나게 된다. <명월정>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뤄지는 주변 공간을 낭만적으로 채색하는 고소설의 관습이 재현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제로 남녀의 만남에

53) 이도령의 묵음이 흥글항글하여 불승탕정이라. 산천경기 보려하고 방자 불너 분부하디, “이 고을 구경쳐가 어디 ” ” 유명한다?” 방자 엇조오되, “무슨 경을 보랴호?” …… “본읍의 광한루가 경기 절승 유명호와 시인 소직드리 쇼강남의 비겨 있고, 풍류 호스 칭찬호되 별유던지비인간으로 니르옵나이다.” “어허! 네 말 갖홀진디 절승경기 분명하다. 아모커나 구경가즈.” (『남원고사』, 6-8장,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54) 소설 <추풍감별곡>은 기존에 불리던 동명(同名)의 가사(歌辭) 전체를 작품에 삼입했는데, 이 노래 중에 소설의 배경이 된 평양의 명승지가 열거된다. 『단봉丹峯이높고』 ” ” 편수渭水가깊고깊혀 문어질줄물낫스니 쓴치질줄아랏스라…… 석양산로夕陽山路로 을밀디乙密臺올나가니 풍광光風은예와달나 만물萬物이쇼연蕭然하다 룡라도綾羅鳥쇠衰호버들 생긴가지소슬蕭瑟하고 금수봉錦繡峯짓진남계 상연霜葉이표 불飄拂하다…… 보통문普通門송식당送客亭에 리별離別익기여설어마라 초피왕楚霸王장壯호뜻도 죽기로리별離別설어…… 초혜草鞋를떨쳐신고 섬거이이러거려 영명寺永明寺츠저들어 중아몰어보즈…… 죽장竹杖을긔쳐집고 부벽루浮碧樓올나보니 들밭계점 〃 봉點 〃 峯은 구름속에쇼스잇고…… 절은탄식歎息긴흔심寒心에 발를밀어 이러거려 지향업시가는길에 의연당藹然堂드단말가, [池松旭(著作兼發行者), 『추풍감별곡』, 新舊書林, 1913]

대한 낭만성을 높여 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남녀의 결연을 그리는 소설에서는 그들의 첫 만남이 의미 있게 묘사된다. 고소설에서 남주인공은 기생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녀의 노랫소리 및 악기연주에 끌리고, 기생 역시 남주인공의 준수한 외모와 시재(詩才)에 반하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⁵⁵⁾ 그리고 두 사람은 술상을 가운데 놓고 한 방에 마주앉아 시와 노래로 마음을 주고받다가, 이내 잠 자리에 들어 운우지정(雲雨之情)의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다.⁵⁶⁾ 두 사람의 첫 만남에는 시와 음률, 술잔이 어우러지며 낭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55) 양공자가 추수양안(秋水兩眼)을 흘려 살펴보니 그 중에 일개 미인이 불언불소(不言不笑)하고 표연(飄然)히 앉았으니, 옥 같은 귀밑에 운빈(雲鬢)이 삼사(鬢髻)하고 파리한 옥안(玉顏)에 춘광(春光)이 초취하여 냉담(冷淡)한 기상은 빙호추월(氷壺秋月)의 정신을 머금었고 총명한 자질은 창해명주(滄海明珠)가 광채를 감추었으니, 침향정(沈香亭) 상의 조로(朝露)를 머금은 해당화에 비유할 배 아니라. 공자가 심중(心中)에 생각하되, ‘내 경성경국지색(傾城傾國之色)을 옛 글에 들었더니 이제 보는지라. 이는 반드시 심상(尋常)한 여자가 아니라, 소년이 말하던 바 강남홍(江南紅)이로다.’ 하고 여러 선비를 좇아 말석(末席)에 앉으니, 이때 강남홍이 또한 일쌍추파(一雙秋波)를 흘려 석상(席上)의 모든 문사를 살펴보매, 방탕한 거동과 융속(庸俗)한 말씨가 모두 녹록지배(碌碌之輩)로되 그 중에 일개 수재 말석(末席)에 앉았으니, 초초(草草)한 의복과 서어(齷齪)한 행색이 비록 빈한(貧寒)한 선비나 표일(飄逸)한 기상과 동탕(動蕩)한 풍도(風度)가 일좌(一座)의 제일이니, 단산서봉(丹山瑞鳳)이 계군(鷄群)에 처(處)하고 창해신룡(滄海神龍)이 풍운(風雲)을 회롱하는 듯하거늘, 홍낭이 심중에 놀라 말, “내 청루(靑樓)에 처하여 열인(閨人)함이 허다하나 어찌 저 같은 기남자(奇男子)를 보았으리오?” [향목동 세책 『옥루몽』 권2(1908년 필사), 2-3장(이운석·최우영 교주, 앞의 책, 38-39쪽)]

56) 배반(杯盤)을 내와 은근한 정화와 변화한 담소가 녹수(綠水)의 원앙(鴛鴦)이 춘풍을 회롱하고 단산(丹山)의 서봉(瑞鳳)이 상서(祥瑞)를 화명(和鳴)함 같더라. 이에 금금(錦衾)을 포설(鋪設)하고 봉침(鳳枕)을 연합새, 홍낭이 나삼(羅衫)을 벗으며 옥 같은 팔에 일점 앵혈(鶯血)이 완연하여 동풍춘설(東風春雪)에 도화(桃花) 일점이 떨어진 듯, 해상(海上) 홍일(紅日)이 운간(雲間)에 솟아난 듯하거늘…… 차시 홍낭은 절대 가인이요, 양공자는 소년재사(少年才士)라. 남녀풍정이 어찌 담연(淡然)하리오. 양정(兩情)이 권권(縈縈)하여 추야(秋夜)가 저저함을 한하더라. [향목동 세책 『옥루몽』 권3(1908년 필사), 21-22장(이운석·최우영 교주(2007), 앞의 책, 81-82쪽)]

것이다.

<명월정>에서 허원과 채홍의 첫 만남에도 음악소리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낭만적 분위기와는 오히려 상반된 것이다. 길거리에서 기생연주회를 광고하느라 천박스런 악기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구경꾼들이 몰려 시끌벅적한 가운데 허원이 광고 행렬의 맨 뒤에서 처량하게 눈물짓고 있는 채홍을 보게 된다.

그 압 골목에 울긋불긋 기를 들고 난우난 난우난, 덩덕송 덩덕송, 호각 소리 썩르락하더니 인력거 우헤 웃둑 셔셔 머이라 머이라 흐는 것은 이적 기싱 연주회에서 광고하는 판이라. 뒀 뒤 인력거에 흐 기싱이 철턴흐 한을 썩여 슬픈 눈물을 머금고 짜만 굶어보며 쓰을녀 가는 것을 엇진 곡절을 알고져 하더라.⁵⁷⁾

뒤에 중매쟁이 장덕이의 집에서 두 사람은 타의에 의해 각기 흠아비와 과부로 꾸며져 대면하게 된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초라한 만남이다. 고소설 같으면 짧으나 꼭진히 묘사되게 마련인 남녀 주인공의 초야(初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채홍이 아들을 낳아 허원은 혈속을 잇게 되고 채홍은 몸으로 은혜를 갚게 되었다는 서술이 나올 뿐이다.

그리고 고소설에서 남주인공과 기생의 결연은 자연스런 계기로 이뤄진다. 남주인공이 풍류를 즐기며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기생과 만나거나, 혹은 명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찾아갔다가 당사자를 만나고서 서로 눈이 맞아 자연스레 애정이 싹튼다.⁵⁸⁾ 이른바 ‘매혹적인 모멘트’

57) 『명월정』, 2쪽.

58) <홍루몽>의 경우 과거를 보러 상경하던 양창곡이 도둑을 만나 재물을 모두 잃은 후에 근방에서 항주 제일의 명기 강남홍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회(詩會)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상금도 타고 강남홍도 볼 심산으로 압강정(壓江亭)을 찾아갔다가 두 사람

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허원은 처음부터 후사(後嗣)를 이어 줄 첩을 구하려는 작정으로 개성으로 가고, 여관 주인에게 중매를 부탁해서 채홍과 만나게 된다. 이로 보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은 다분히 현실적이며 무미건조하다.

남주인공과 애정을 나누는 기생 중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기생으로 전락한 처지로 항상 이를 한탄하면서 남주인공의 첩이 되어 기적(妓籍)에서 몸을 뺄 수 있기를 갈망한다.⁵⁹⁾ 그러나 기생 등장인물의 고소설에는 일종의 이율배반이 있으니, 이러한 기생과 남주인공의 애정은 언제나 낭만적인 색채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고소설의 기생은 애처롭지만 매력적인 대상이다. 그런데 <명월정>에서는 기생에게서 풍겨지는 이 같은 낭만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명월정>은 기생 영업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신문 기사와 인물의 언설을 빌려 사회적 해악이 되는 기생 영업을 그만둘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직업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일 뿐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명월정>은 일면 기생이 등장하는 고소설의 서사적 관습을 이어받으면서도 동시에 그와는 여러 가지 변별점을 보이

의 만남이 이뤄지게 된다.

59) “첩(강남홍)은 본디 강남 사람이요, 성은 사씨라. 첩이 생세(生世)한 지 삼년에 산둥(山東)에 도적이 일어나 부모를 난중(亂中)에 실산(失散)하고 일신(一身)이 의지할 곳이 없어 전전표박(轉轉漂泊)하여 청루에 팔리니 이 또 첩의 명도(命途)라. 천성이 괴이하여 범부속자(凡夫俗子)에게 허신(許身)할 뜻이 없어 청루 십년에 허다히 열인(閹人)함이 있으나 지기를 만나지 못하였더니, 이제 공자(양창곡)를 뵈오매 첩이 비록 지인(知人)하는 안력(眼力)이 없사오나 공자의 영준(英俊)한 기상을 뵈오니 가히 당세(當世)의 일인이 될지라. 이리므로 일신을 공자에게 의탁하여 천한 이름을 신설(伸雪)코자 하나이다.” [향목동 세책 『옥루몽』 권3(1908년 필사), 20-21장(이운석·최우영 교주(2007), 앞의 책, 81쪽)] 기생의 소원에 부응하여 고소설의 남주인공은 상대를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며, <명월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허원이 채홍을 기생으로 전락할 처지에서 구하고 그녀의 원수를 갚아 준다.

고 있으니, 그것은 낭만성의 탈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명월정>은 남주인공과 기생의 만남을 모티프로 하되 초점은 두 사람의 낭만적인 애정을 묘사하는 데에 두지 않고,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악인들의 횡포와 당대 기생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발하는 데에 두었다. 이런 면에서 <명월정>은 현실성과 고발성이 강한 작품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중국의 강남이나 조선의 평양을 기생의 활동 공간으로 설정하는 관습성에서 탈피해 왜 문학공간으로서의 생소한 개성을 배경으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고소설의 전통을 통해 중국의 강남이나 조선의 평양에 부여된 낭만성이 현실에 대한 고발을 주지로 하는 <명월정>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성은 오래 전부터 상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로, 짐작컨대 그 이면에는 환락과 유흥을 좇는 도시 특유의 음성적 문화가 확산되어 있었을 곳이다.⁶⁰⁾ 또 작품 내에서 말하는 바대로 개성은 이전까지 조직화된 기생 영업이 없다가 당시 기생조합소가 비로소 생겨남으로써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을 곳이다. 이런 개성이 작품이 표방하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더 적합했을 것이다. 기생을 등장시키면서도 중국의 강남이나 조선의 평양처럼 익숙한 공간이 아닌 개성을 그 공간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⁶¹⁾

60) 야담 <혁미수증(嚇美酬僧)>을 보면 한 개성상인이 만금을 출자하여 평양에 술청을 차리고 명기를 고용해서 하룻밤에 천금의 화대를 내걸고 장사를 한다. 서울 사는 이 씨가 그 기생과 놀다 잡자리에 들어서서는 터무니없는 이윤을 취하려 한다며 칼을 빼어 들고 위협한다. 그리고 함께 금강산으로 도망쳐 그 기생으로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번다.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78, 73-80쪽) 장소가 개성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상업으로 형성된 개성의 부(富)가 기생 영업과 연결되어 여러 폐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된다.

61) 앞서 언급한 <청년회심곡>에 남주인공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는 악한 기생 경패와 그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기생집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 같은 이유에

위에서 언급된 <명월정>과 고소설의 차이점은 작품이 남성과 여성 중 주로 어느 편의 관점에서 쓰였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고소설에는 기생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동정의 시선이 있을망정 전체적으로는 기생과의 자유로운 애정을 욕망하는 남성적 관점이 강하다. 그에 비해 <명월정>은 의식적으로 여성적 관점을 도입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 교육, 남녀 평등, 조혼 및 축첩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이다. <명월정>에서는 작자의 변을 통해 졸업을 앞둔 채흥으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게 한 부모를 나무라고, 개명(開明)한 부인이 여학교 상급식에서 행하는 연설을 삽입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채흥과 상순의 대화 속에서 남녀 평등을 지지하고 조혼과 축첩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개화(開化)’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던 1910년대 당시의 시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기생과의 결연담에서 낭만적인 색채를 빼고 오로지 그것을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여권 및 개화에 대한 의식의 표방이다.

5. 결론

조선시대의 대표적 명기인 황진이로 인하여 ‘송도기생’이란 말이 친숙하다. 하지만 실상 그 밖에 송도기생 가운데 이름을 널리 알린 이는 없고, 문학작품 속에 송도기생이 등장하는 예도 별로 없다. 이런 가운데 1912년도에 발행된 소설 <명월정>에는 여주인공이 송도기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채롭다.

<명월정>은 1910년대 초반 당시의 송도기생에 관해 사실적으로 잘 형

서 개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화하였다. 여주인공 채홍을 두고 인천의 뚜쟁이 할멈과 개성의 기생 업자 사이에 인신매매가 이뤄진다. 채홍은 그 무렵에 생겨난 송도 기생조합소로 넘겨져 조합소 직원들과 기존 기생들로부터 기생이 되도록 협박과 회유를 당한다. 그리고 당시에 매우 성행했던 기생연주회의 광고 행렬에 동원되었다가 남주인공 허원의 눈에 띄게 된다. 또한 작품은 신문과 인물의 언설을 통해 기생 영업에 대한 당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

<명월정>의 여주인공이 고소설에서는 상당히 낯선 편인 송도기생이 될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그녀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는 기생, 특히 평양기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서사 전개상 여주인공이 기생의 집단에 빠져드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신의와 정절의 화신이 되어야 할 그녀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송도여인은 평양기생과 대비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해 온 만큼 여주인공을 송도기생과 연결시키는 것이 작품에 유익한 일이었다.

남주인공이 여행을 떠나 낯선 지역에서 기생을 만나는 것은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오랜 내력을 가지고 관습화되어 온 모티프이다. <명월정>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의 만남을 통해 두 남녀가 결연을 이루지만, 이 작품에는 기생이 등장하는 고소설 특유의 낭만적 분위기라곤 거의 없다. 오히려 기생조합소를 중심으로 한 당시 기생 영업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고소설을 통해 기생의 공간으로 친숙해진 중국의 강남이나 조선의 평양과 같은 곳을 놓아두고 <명월정>에서 대신 개성을 선택한 것은 작자가 문학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고민한 데에서 비롯된 일이다. 고소설의 전통 속에서 강남과 평양에 부여된 낭만적 심상이 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데에는 방해

가 된다. 기생 영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상업 도시로 그 이면에 불건전한 성(性) 문화가 확산되어 있었을 개성이 적합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의 작품인 <청년회심곡>에서도 개성을 배경으로 하여 송도 기생을 등장시키고, 기생 영업의 부정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혹시 이 같은 양상이 1900년대 초반의 문학에 존재한 하나의 경향이었던 것인지, 앞으로 해당 시기의 기생 등장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朴頤陽(著作兼發行者 南宮濬), 『명월정』, 唯一書館, 1912.
- 이윤석·최우영 교주, 『옥루몽』 I·II, 경인문화사, 2006·2007.
-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민속원, 2006, 1-399쪽.
- 송경록,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 푸른숲, 2000, 1-278쪽.
- 이능화 저·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1-568쪽.
- 이상원, 『기생문학산고』 1·2, 국학자료원, 2012, 1-738쪽.
-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1-390쪽.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1-389쪽.
- _____,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1-349쪽.
- 가와무라 미나토 저·유재순 역, 『기생: 말하는 꽃』, 소담, 2002, 1-343쪽.
- 강현조, 이야기의 소설적 각색에 대한 일고찰: <화산중봉기(華山重逢記)>와 <단발령(斷髮嶺)>, <소설인규옥소선(掃雪因窺玉簫仙)>과 <금상첨화(錦上添花)>, <삼쾌정(三快停)> 제 2화와 <고의성(鼓의聲)>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회 제 60차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문, 2013.3, 1-17쪽.
- 권순궁, 『한국 고소설과 중국 湖南지역』, 우리한문학회, 『漢文學報』 19, 2008, 283-299쪽.
- 김민호, 『他者の視線으로 바라 본 中國 江南 이미지: 燕行錄과 漂海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43, 2009, 357-382쪽.
- 김진영, 『강남 문학의 지역적 특성』, 부산 외국어 대학교, 『外大論叢』 21, 2000, 137-169쪽.
-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 신문에 관한 연구: 1881년부터 1945까지 발행된 일본인 경영 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11쪽.
- 민영대, 『蔡瑞虹忍辱報仇와 明月亭의 相關性』, 한국언어문화회, 『한국언어문학』, 74, 2010, 199-228쪽.
- 서대석, 『신소설(新小說) <명월정(明月亭)>의 변안양상(變案樣相)』,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72·73, 1976, 327-331쪽.

- 신대수,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韓民族語文學會, 『韓民族語文學』 28, 1985, 215-255쪽.
- _____,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권필의 <周生傳>에 형상화된 중국 남방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31, 2011, 5-39쪽.
- 윤정현, 「1920年 前後 韓國小說에 나타난 죽음 樣相考: 妓女の 自殺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會, 『韓民族語文學』 13, 1986, 517-534쪽.
-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中國 江南의 文學地理學」, 한국한문학회, 『韓國漢文學研究』 49, 2012, 241-274쪽.
- 이복규, 「우리나라를 무대로 한 고소설의 배경지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의 민속과 문화』 1, 1998, 41-64쪽.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234쪽.
- 장노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반복서술의 양상과 기능」,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1, 55-86쪽.
- 정혜영, 「근대의 성립과 기생의 몰락: 근대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20, 2007, 235-256쪽.
- 최숙인, 「韓國 開化期 飜案小說研究: <明月亭> · <杜鵑聲> · <海王星>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1-164쪽.
-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82쪽.
- 탁원정, 「고소설 속 관서 · 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24, 2011, 147-190쪽.
-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13, 2007, 67-99쪽.

ABSTRACT

A Consideration on the 松都妓生(song-do-gi-sang) in the
<明月亭(Myung-wol-jeong)>

Park, Sang-seok

The 妓生(gisaeng) of 松都〔Song-do, 開城(Gae-seong)〕 is rare in the story of 朝鮮(Joseon). The 松都妓生 is shown as a heroin in <明月亭>, the novel published in 1912. This novel shows the real aspects of 松都妓生 and the critical opinion about 妓生 of those times.

Why 松都妓生 is appeared in <明月亭>? The first reason is relevant to the critical opinion about 妓生 of those times. Especially the 平壤妓生 was described as a wicked character in many novels at that time. Against that 松都 woman has been considered to be very faithful and modest while 平壤妓生 is very sensual. So making a heroin as a 松都妓生 could give her a positive image.

The second reason is relevant to the critical aspects of <明月亭>. 妓生 in the 朝鮮 novel is generally 江南妓生 of Chinese or 平壤妓生 of 朝鮮, because those province was very luxurious and splendid. But <明月亭> is accusing of many problems of 妓生 business at that time, so the romantic mode of 江南 or 平壤 is not appropriate with <明月亭>. Meanwhile 開城 had no such romanic mode in connection with 妓生, and at that time 妓生 business was being started there. In these respect, 松都 is appropriate place to <明月亭>.

Key Words 明月亭(Myung-wol-jeong), 松都(Song-do), 開城(Gae-seong), 松都妓生, 平壤(Pyeong-yang), 平壤妓生, 江南(Gang-nam), 江南妓生, 妓生組合所(妓生 association), 妓生演奏會(recital of 妓生)

논문투고일 : 2013. 09. 30
심사완료일 : 2013. 11. 19
게재확정일 : 2013. 11. 26